

전통문화 기반 실감형 K-콘텐츠 본격화

전주문화재단-전북테크노파크, '미래문화도시 전주, 실감미디어아트 기반 조성' 업무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실감형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4일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다목적실에서 '미래문화도시 전주, 실감미디어아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락기 대표이사와 이규택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실감형 미디어아트(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구현 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의 상호 공유 △홀로그램 등 미래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적용 △콘텐츠 성과 확산 및 공동 활용 △구현 장비 구축 이후 결과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전주가 기술 기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전통성과 기술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감형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과 전북테크노파크는 4일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다목적실에서 '미래문화도시 전주, 실감미디어아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규택 원장은 "홀로그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지역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와 산업이 상생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실감형 미디어아트(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구현 장비 구축 사업은 올 하반기 주

요 정비 구축과 콘텐츠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10월 개회 예정인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icf.or.kr)과 홀로포탈(holoportal.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미래문화기획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제작 다큐멘터리 주목

정기용, 감응의 건축: (옛)서창향토박물관
EBS국제다큐영화제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상영작 선정

고 정기용 건축가가 남긴 무주군 공공 건축물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 '정기용, 감응의 건축: (옛)서창향토박물관'(정다운 감독, 2025)이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와 제1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정기용, 감응의 건축: (옛)서창향토박물관'은 정기용 건축가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여 년간 진행한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옛)서창향토박물관((현)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이 지닌 감응의 태도와 공공성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특히 <이타미 준의 바다>(2019) 등 건축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해온 정다운 감독은 건축이 인간과 자연, 지역과 시대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건축가 정기용의 철학을 깊이 있는 연출력으로 조명했다.

무주산골영화제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이 작품은 지역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기록물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정기용, 감응의 건축:



정기용, 감응의 건축: (옛)서창향토박물관 스틸 (사진=무주산골영화제 제공)

(옛)서창향토박물관'을 시작으로 '정기용 건축가 무주 공공건축'과 관련한 영상 기록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무주드나무운동장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

'정기용, 감응의 건축: (옛)서창향토박물관'은 지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첫 공식 상영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극장상영 및 TV방영)와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극장상영)에서 관객들과 다시 한 번 만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 전북 야행명소 10선 선정

고요한 물결 위로 펼쳐지는 야경 향연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가 '2025년 전북 야행명소 10선'에 최종 선정됐다.

남대천 별빛 다리는 연장(L) 133m, 보행 폭(B) 2m, 주탑 높이 30m 규모의 경관조명 교량으로, 밤이면 하천 위로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조명이 별빛이 흐르듯 반짝이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인근의 남대천 산책로를 비롯해 한풍루와 등나무운동장 반디 숲(조명), 예체문화관 앞 반디그루(미디어아트 시설물), 무주상상반디숲으로 이어지는 조화가 뛰어나 체류형 야간관광지로 주목을 받았다.

이현우 무주군청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전북



야행명소 선정을 계기로 별빛다리를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가올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9월 남대천교 경관 음악분수 개장도 앞두고 있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무주를 대표

하는 야행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상생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야행 명소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장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발굴한 곳들로,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체류형 관광지들을 선정해 낮 관광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전북 야행명소 10선에는 무주군의 별빛다리를 비롯해 △군산시 군산세관 및 은파관광지 △익산시 왕궁리 유적지 △정읍시 정읍사 달빛사랑숲 △남원시 광한루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 △고창군 고창읍성 △부안군 변산해수욕장과 청립천문대가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립 고산도서관, '저녁에는 도서관으로'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녁에는 도서관으로'를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

시간씩 총 20회차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풍속화, 가족공예, 도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로 구성돼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풍속화 수업은 지역작가 윤대라 화백이 직접 강의를 맡아 조선시대 김홍도의 풍속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완주군 현대풍

속화' 제작 활동으로 운영된다. 수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오일장, 지역 축제, 학교, 마을회관, 절기 행사 등 지역 주민의 일상 풍경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완성된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 및 엽서로 제작돼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배포·활용될 계획이다. 이는 주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지역문화 자산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무주군 최북미술관, 찾아가는 시·군 협력 전시 '한운성-채집하다'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시·군 협력 전시 '한운성-채집하다'가 오는 24일까지 무주군 최북미술관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시·군 협력 전시회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을 공공재로 공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한운성 작가(1946~)의 작품 2점이 소개된다. '과일'을 '채집'의 대상으로 선택한 한운성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드로잉 5점, 판화 5점, 회화 11점을 선보이고 있다.

한운성 작가의 '과일'은 외형의 표현과 재현뿐만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표현했고, 연작을 통해 사회비판을 더한 작품으로 재탄생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양정은 무주최북미술관 학예사는 "작가는 인간에 의해 유전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과일의 외형을 작품으로 남기는 '채집'의 과정을 통해 '보존'하고 또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라며 "한운성 작가의 과일 시리즈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다가를 미래까지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운성 작가는 판화가이자 화가로 1970년대에는 콜라겐, 1980년대 초에는 문과 받침목을



그렸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매듭을 소재로 한 작품을,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일을 그려오고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최북미술관(무주읍 최북로 15 / 09:00~18:00 월요일 휴관 / 063-320-5636)은 조선 후기 산수화의 대가 최북의 그림 세계를 조망할 목적으로 건립된 공립미술관(2012. 6. 8. 개관)이다.

괴석도와 산수도 등 최북의 진품 5점을 비롯해 156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 외에도 반딧불축제특별전(9.2~10.9), 신진작가발굴전Ⅲ(12.5~) 등이 앞으로 개최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